



글·사진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 천하의 북경, 공중화장실

## 홍하상

MBC 다큐멘터리 작가, 한국회장실문화협의회 전문위원  
 MBC 다큐멘터리 270여편, MBC 방송대상 작가상 수상  
 저서 : '일본뒷골목 옛보기', '프랑스 뒷골목 이야기',  
 '지구촌 뒷골목 음식 한 그릇',  
 '카리스마 vs 카리스마'  
 소설 : '외인부대원 꼬레앙'

여기는 북경.

북경의 한복판에 있는 자금성 앞에 나는 와 있다.

북경에서 한국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자금성이다. 그러나 자금성은 북경에 없다.

북경에서는 자금성을 구궁, 즉 고궁(故宮)이라 부른다.

택시를 타고 자금성에 가자고 외쳐 보았자 무슨 말인지 모른다.

“구궁”이라고 해야 한다.

자금성이 나에게 깊이 각인 된 것은 영화 <마지막 황제, 부의> 때문이다.

겨우 다섯 살에 황제에 오른 이 어린 제왕은 자신이 천하의 지배자가 된 것도 모르고 천방지축 뛰어노와 자금성 정원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수천 명의 문무백관을 재미난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그 천진난만한 표정이 관객을 울린다. 그의 앞날이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관객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천제의 옥좌

황제의 정원에 있는 정재술진을 띄워 술을 마셨다)

## 중국 최대의 황궁 - 자금성

자금성은 정말 크다.

9개의 구궁궁궐이 겹겹이 쌓여있다.

태화문에 들어서자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던 운동장 만한 궁정이 나오고 그 궁정을 태화전이 굽어보고 있다.

궁정, 즉 정원의 길은 온통 대리석 조각품 천지이다.

황제는 여기서 정사를 보았다. 온통 금칠로 장식된 황제의 옥좌를 보면 중국의 천자가 얼마나 지체가 높았는가가 실감나게 느껴진다.

태화전을 지나면 이번에는 중화전이 나온다. 중화전은 황제가 쉬던 궁궐이다.

중화전을 지나면 이번에는 보화전이 나온다.

한 개의 궁궐을 지나면 또 한 개의 궁궐이 나오고, 끝이 없이 궁궐이 나오다가 결국은 여덟 개의 문과 궁정과 대궐을 지나면 드디어 황제의 정원인 화원이 나온다.

황제의 정원은 천하를 축소한 각종 기산요석의 집합체이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예술이다. 9900칸의 대 궁궐, 22만평의 자금성.

조선의 역대 왕들은 임금이 되기 전에 여기로 사신을 보내 중국의 황제로부터 재가를 받았다. 어디 그 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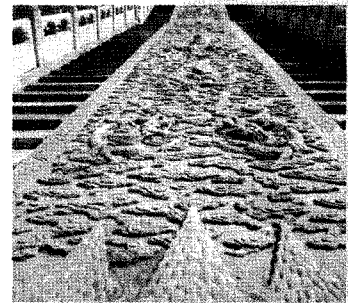
봄가을로 문안인사를 드리러 사신을 보냈고, 천자의 생신이나 즉위 때도 경축사절을 보냈다. 조선은 주권이 있었지만, 사실은 주권이 없었다.

조선 5백년 역사에 중국을 가장 많이 외본 사람은 역관 오경석이다. 그는 사행사절의 일원으로 14번이나 사절단에 끼었다. 통역이었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서울에서 북경이 비행기로 두 시간 거리로,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중국 출장을 5백 번 갔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못했다.

한양을 출발해서 신의주를 거쳐, 중국의 단둥을 지나 심양을 거쳐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까지 가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렸다.

가고 오는 데만 4~5개월, 머무는 데 다시 1~2개월이니 한 번 다녀오면 한해가 다 가버리는 것이다.



보화전 뒤에 위치한 궁내의 가장 큰 운동 석조